

文 “해운·항공 지원방안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

코로나19 여파 지역경제 활력 당부 국토부, 공적임대주택 21만호 공급 해수부, 어촌뉴딜사업확대 등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정책 방향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정부 부처가 새해를 맞아 업무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이고, 17일 경제부처 이후 10일 만이다.

이날 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상황에 대비 차원에서 경제 활력을 변함없이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업무 보고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참석 인원은 90명으로 최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해운·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 산업까지 민생과 국가 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 보고에서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경제 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 현안(서민 주거 안정·출퇴근 시간 단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역별 경제 거점 조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도심 내 쇠퇴 지역 공공 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신공항 건설 등 교통 SOC 건설 자금 14조 원 투입, 21만 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 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 성장 견인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해

수부는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 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박량 확충, 어촌 뉴딜사업 확대, 부산·인천·광양·거제 등 노후·유휴 항만 재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 보고에서는 국토·해양 현장을 연결해 사례에 대해 들어보는 방식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 연결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연결에서 마을 주민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프라 건설에 따른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해수부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선박 선장과 현장 연결을 준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민심 다독이기’ 황교안 TK행 “누가 이렇게 했나” 정부 비판

(미래통합당 대표)

대구서문시장·동산병원 등 방문 黃 “정부 걱정 막지 못한 내 잘못”

황교안미래통합당대표가 27일 대구를 찾아 ‘문재인 심판론’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대구·경북 지역(이하 TK)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힘입어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TK 봉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 여론은 더욱 나빠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를 방문해 여론 수습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은 여전히 전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에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김명연 당대표 비서실장과 전희경 대변인 등 당직자와 함께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방문했다.

황 대표는 동산병원에서 조치흠 동산병원장과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등을 만났다. 조 원장과 이 회장은 각각 부족한 의료 인력과 병상 문제를 거론했다. 이후 황 대표는 코로나 19 여파로 휴업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임시 휴장 중인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인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김영오 서문시장상인연합회 회장과 만났다.

시장을 둘러본 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1년 전에 대구에서 근무했는데, 그때도 대구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활기차고 자부심 가진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 (서문시장에) 와서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도시로 바뀌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시장을)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의 어려움에 저도 책임이 있다. 이 정부의 걱정을 막아내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학습공백 메워라”... 교육업계 전방위 지원

메가스터디교육·대성마이맥
고교 개학 전까지 강좌 무상 제공
비상교육 수박씨닷컴
과목별 강사 ‘긴급 Q&A 서비스’
지자체와 무료 온라인학습 준비
스리제이에듀 ‘단어 암기 앱’ 무료



비상교육 수박씨닷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개학 연기와 학원 휴업 등으로 갈 곳이 없어진 학생들에게 교육업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27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과 대성마이맥 등은 고교생 대상 전 강좌를 개학 전까지 무료 제공하고, 스리제이에듀는 단어 암기 앱을 2주간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비상교육 수박씨닷컴도 ‘안전한 프리스쿨 프로젝트’를 시행해 학생들의 학습공백 차단을 이 나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등 모든 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2일에서 1주일 연기해 3월9일로 옮겼다. 학원 휴업도 권고되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올해 3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일정도 1주일 연기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 공백 우려가 나온다.

대성마이맥은 전체 강좌를 개학 전인 3월8일까지 모든 강좌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수능을 대비하는 고3이나 N수생뿐 아니라 내신을 준비하는 고2나 고1 모두 대성마이맥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식공유플랫폼주식회사디쉐어의 수능 영어 및 내신 전문 브랜드 쓰리제이에듀는 단어 암기 애플리케이션 ‘단 끝’을 오는 3월11일까지 약 2주간 무료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단 끝은 기존 재원생에 한해 무료 제공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모든 학생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별도 비용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무료 배포가 종료되면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의 중등 인강 사이트 수박씨닷컴은 중학생들을 위해 개학 연기 기간 중 학교 진도학습을 진행하도록 ‘안전한 프리스쿨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매일 저녁 8시~9시30분까지 90분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자유롭게 올리면 수박씨닷컴 과목별 강사들이 답변을 해주는 ‘긴급 Q&A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박씨닷컴이 운영하는 학습계획 서비스 ‘스마트플랜’을 통해 주당 학습시간을 늘린 새로운 계획표를 제공해 집에서 학습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수박씨닷컴은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경북 지역 등 지자체와 함께 무상 온라인학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용수 기자 hys@

“3D 프린터로 만든 국방부품 국내 조달”

국방부-산자부 국방규격 업무협약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중·저고도 대공화기인 발칸포에 주요부품인 ‘하우징 조절판’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부품은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나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

국방부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함께 하우징 조절판을 비롯한 금속부품의 3D프린팅 제작과 관련된 국방규격을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술로 ‘하우징 조절판’ 시제품을 제작했고,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과 제작방법 등을 명시한 국방규격이 마련되면서, ‘하우징 조절판’ 규격서상 3D프린팅 제작 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부품을 생산·제공할 수 있게됐다.

/문형철 기자 captinm@

한신대-오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맞손

한신대학교는 오산시의 공동 대응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신대와 오산시는 지난 19일부터 실무시간 업무협조를 시작해 24일

상속 오산시장, 장인수 오산시의회의장과 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5일에는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이 한신대 기숙사를 방문해 대학측과 함께 시설을 점검했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약대·간호대 국가고시 100%합격

삼육대약학대학과 간호대학은 최근 치러진 국가시험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27일 삼육대에 따르면, 약학대학 졸업예정자 37명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 주관으로 지난 1월 22일 실시된 ‘2020년 제71회 약사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같은 날 열린 ‘제60회 간호사 시험’에서도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65명이 전원 합격했다. 특히 간호대학은 2018, 2019년 시험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가고시 합격률 100%’ 쾌거를 이뤘다. /한용수 기자